

한국카본, LNG 보냉재 매출로 호조

한국카본의 2/4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신영증권이 7월11일 전망했다.

엄경아 연구원은 “2011년 수주한 LNG(Liquefied Natural Gas) 선박용 보냉재가 매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며 “2013년까지 지속적인 영업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신영증권은 한국카본에 대한 투자의견으로 <매수>와 목표주가 1만원을 유지했다.

<화학저널 2012/07/11>